

북해도에서 온 러브레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김주환 · 홍성아 선교사 가정

평안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교만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다운 삶인지에 직면하는 하루하루입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지만, 새시대에 맞는 선교방법들을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가운데에서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코로나와 대규모 홍수, 폭발사고 등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들로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적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할 뿐입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영성과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들을, 머리되신 주님께서 각별하신 은혜로 돌보아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78억의 지구촌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분교다이레인보우교회 예배상황

저희 교회는 6월부터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물론 온라인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큰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의자를 줄여 간격을 넓히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그리고 체온체크 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사교제도 없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예배당을 나갈 것을 권유하지만, 성도들은 자리에 서서 마스크를 쓴 채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갈급함을 느낍니다. 예배당을 나가 야외에서 교제해 달라는 안내멘트에, 밖으로 나가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얼굴을 매주 볼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유베츠메구미교회의 예배는 DVD를 보내는 대신, zoom으로 매주일 저녁6시부터 갖고 있습니다.

zoom을 통한 각종 회의와 청년회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상황도 비슷하리라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면을 해야하는 회의나 모임 등은 취소되거나 zoom 등의 인터넷회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회도 기본적으로 zoom으로 실시하고 한 번씩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데, 인터넷을 통한 모임이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먼 곳에 떨어져있어서 평소에는 청년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멤



zoom을 통한 청년회 모습

버들도 지역에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해도와 일본상황

이 곳 북해도는 7월초까지는 코로나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감염자가 늘어나 일본 전체 1일 감염자수가 계속해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영향이 북해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금 긴급사태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동경에서는 제2파가 왔다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동시에 경제적인 타격을 감안해서, 각종 지원금과 할인 등을 통해 여행을 장려하기도 했지만,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가 허락되어서 가장 합당한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한일 양국간의 정치적인 골이 자꾸만 깊어져가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화해와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쿠와쿠레인보우(두근두근 레인보우) Bible Day



와쿠와쿠 바이블 데이 말씀시간



즐거워하는 어린 친구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린이들을 위해서 라인(한국의 카카오톡과 유사)에 그룹을 만들어 그림동화 형식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또 성경암송을 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성경암송을 하여 어린이들이 라인에 올리면 교사들이 칭찬의 답글을 올려주면서 격려하였습니다. 6월에 예배를 재개하면서 주일학교예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외부 어린이들 대상으로 열었던 모임(와쿠와쿠레인보우)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일학교예배도 어른 예배 시간과 동시에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시 바꾸어서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선교구(노회의) 바이블 캠프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휴일인 바다의 날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와쿠와쿠레인보우 바이블 데이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여도 될지 걱정이 있었지만, 기도하며 교사들과 상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걱정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거의 6개월만에 평일에 진행된 어린이집회. 말씀이 선포되고 즐거운 게임과 찬양과 교제.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참석한 교사는 마치 천국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유베츠메구미교회 건축진행상황

유베츠메구미교회 건축은, 건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한 건축설계회사로 결정이 될 것 같으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논의를 하면서 모두가 찬성하는 회사를 찾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아무쪼록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쳐지지도 않게 주님의 뜻대로, 가장 합당한 회사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유베츠 현지의 4명의 젊은 청년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시설과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한 기도

코로나 사태는 특별히 병약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힘겨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에 계신 쿠로사와 쿄오코 자매(98세)와 그 사위 요스기 아츠시 형제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히 고령자인 쿠로사와 자매의 경우에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휴대폰으로만 면회가 허락됐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상황이라 의사소통이 힘들었습니다. 몇 달만에 면회가 허락되어 따님과 함께 갔는데 유리창 너머로 저희의 얼굴은 보이지만 손도 한 번 잡아 보지 못하고 말은 통하지 않는 답답함. 그래서 결국은 휴대폰으로 큰 글씨를 써서 겨우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이 큰 태블릿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찻잔한 맘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입원해계시는 구도자인 마츠무라씨,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면서도 매주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족을 따라 교회에 오시는 이시카와씨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편지에 말씀드린 정승기 형제와 함께 기초성경공부를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져서 어린 딸들 때문에 성경공부를 잠시 멈춘 오오루이씨와의 성경공부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 말씀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해도에서 사역한지 14년째에 들어갑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오랫동안 북해도에 있었던 연유인지, 거절을 해도 여러가지 중책들을 맡게 됩니다. 북해도 KGK(한국의 IVF) 실행위원, 북해도선교구(한국의 노회)장과 크리스천 홈 비전위원회(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을 돕는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사역이라 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OMF 선교사님과의 협력에 감사

저희 지역에 대학이 많다 보니 OMF와 KGK가 협력하여 대학생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OMF 선교사님(리 차이화 선교사, 싱가포르 출신)의 사택이 저희 동네에 있다보니 매주 저희 교회에 출석하며, 함께 선교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교회 청년사역과 설교사역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협력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선교협력이 더욱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바로 앞길에 핀 라벤다 (7월)



저희 가정 사진

저희 교회 앞에 라벤다가 필 때면, 늘 단기선교팀이 왔고, 선교구 바이블 캠프 등 분주한 여름이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조용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일본 북해도 에베츠시에서
김주환-홍성아 드림

기도해주세요.

1. 분교다이레인보우교회와 유베츠메구미교회의 예배와 성경공부, 주일학교, 문화교실 위에 성령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4.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시카와 미노루 씨의 위암(임파선으로 전이되어 병원에서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짐. 도리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교회예배에 계속 출석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5. 개척교회인 유베츠메구미교회가 좋은 건축설계회사와 연결되어 설계와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현지의 청년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카페교회선교로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허락되도록
6. 이시구로 마사루 신학생(삼반도리복음그리스도교회에 파견중)의 학업을 축복해주시고, 부인과 세 명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모든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도록. 봉사신학생으로 우리 교회에 1년간 파견(신학교 3년 중 2학년 때는 다른 교회에서 파견되어 봉사하게 됨)되어 온 쿠도 신학생 부부와의 선교협력을 축복하시고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OMF의 리 차이화 선교사님과의 선교협력에 감사드리며, 더욱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7. 김주환-홍성아 선교사와 아들 유이(초등학교 3학년)가 늘 성령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한국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위에 주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늘 함께 하도록

(현지주소) 〒069-0833 北海道江別市文京台14-26 文京台レインボー教会

(현지교회) 81-11-386-7750

(LG인터넷전화) 070-7579-0129

(이메일) givinglove77@g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3-764 KPM김주환

· 첫 입금 시에만 KPM 세계선교위원회(042-622-7061~3)로 확인전화를 부탁드립니다.